

공정방송 깃발아래 전국이 하나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 총파업특보 3호

발행인 김연국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2017년 9월 5일



##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2천 조합원은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 정신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방송 종사자들에게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리고 시청자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방송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인 총파업에 나선다. 이번 총파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범죄 집단 김장겸 일당과 언론 부역자들을 MBC에서 깨끗하게 몰아낸다.

정치권력 집단과 추악하게 결탁한 일부 정치 언론인, 부역 언론인들이 다시는 국민의 자산 공영방송 MBC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청산한다.

### 2. 편성의 독립과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쟁취한다.

법원은 공정방송이 전문성을 가진 방송 제작 종사자들의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확립된다고 밝혔다. 다시는 블랙리스트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치열한 성찰을 통해 자율성을 지키겠다. 확고한 편성 규약과 단체협약을 쟁취하겠다.

### 3. MBC의 정치적 독립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싸운다.

공영방송 MBC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시청자들만을 위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혁을 위해 싸우겠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극우 정치집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시민과 현업 종사자 대표가 MBC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 4. 공영성의 중요한 한 축인 지역 네트워크를 복원하겠다.

지역 MBC는 지난 수년 사이 무능한 부역 집단의 전리품으로 전락했다. 낙하산 사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해야 한다. 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청자와 종사자 대표가 사장 선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쟁취하겠다.

우리는 언론 자유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선배 언론인들이 해고와 징계를 각오하고 싸워서 쟁취했다. 촛불이, 시청자와 국민이 우리에게 다시 싸울 기회를 주셨다. 이제 후배 언론인 우리가 답해야 할 차례이다. MBC 총파업은 공영방송 MBC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싸움이다. 이 총파업은 공영방송을 소수 부역자들의 손에서 되찾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 김장겸, ‘부당노동행위’ 조사 받는다

## 오늘 오전, 고용노동부 서부지청 출석

김장겸 사장이 오늘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회사는 “김 사장이 오늘(5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법원에서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6월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이 김 사장에게 세 차례 이상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사장이 출석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자 관련 법절차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총파업 출정식이 진행되고 있던 어제(4일) 오전 10시 30분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5명이 MBC 본사를 찾았다. 주말 내내 행방이 묘연했던 김장겸 사장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출근해 임원회의를 소집하면서 소재가 파악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사측이 근로감독관들의 진입을 막으면서 한때

대치 상황도 발생했지만, 김 사장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근로감독관들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20분 만에 철수했다.

사측은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출석 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라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일단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총파업 출정식에 맞춘 시각”이라며 “체포영장 발부는 총파업에 들어간 언론노조 MBC 본부를 지원하기 위한 음모로 보인다”고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신의 탄핵이 음모에 따른 것이라고 의심하던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떠오르는 반응이다.

고용노동부는 김장겸 사장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미 지난 달 22일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회에서 밝히



기도 했다. 범법자는 수사를 받고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원리다. 김장겸 사장도 예외는 아니다. 김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피의자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 승리의 첫발 내딛다

## 전국 1천5백 조합원 총집결 총파업 출정식

상암 사옥은 함성으로 울렸고 광장은 깃발로 가득 찼다. 서울지부 800여명, 지역사 670명 등 전국 1천5백 조합원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장겸 사장을 몰아내고 공정방송을 되찾기 위한 총파업이 힘찬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5년 7개월 만의 출정식은 한층 더 강렬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그간의 상황보고 도중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상암 사옥에 도착하자, ‘김장겸은 물러가라’를 외치는 구성원들의 함성은 더욱 커졌다. 2012년 170일 파업을 포함해 조합과 함께 싸워온 신인수 변호사가 체포영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발부받을 수 있지

만 김 사장은 아예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과 경영진이 그동안 자행해온 수많은 노조 파괴, 방송 파괴의 증거가 날날이 기록된 법원 판결문으로 쌓여 있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김 사장은 법 집행에 당당하게 나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승리 결정된 싸움 ... 이제는 국민의 품으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업 투쟁을 이끌 12기 집행부가 한 명 한 명 소개될 때마다 함성과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집행부는 이번 파업이 ‘승리가 결정된 싸움’임을 강조했다. 지난 7년간 MBC에 쌓여 있던 적폐, 언론·노동 탄

압에 대해 각 개인과 실무자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했다. 파업 조합원들의 뒤를 든든하게 버티고 선 해직 동료들도 힘을 보탰다. 정영하 전 위원장은 170일 파업 이후 지난 5년을 땀땀으로 버티온 조합원들에게 미안한파고마움을 전하면서, 이번 싸움을 끝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용마 기자의 수척한 모습이 스크린에 비춰질 때는 숙연함으로 침묵이 흘렀다. 박성제 조합원은 “이용마 기자에게 박근혜 탄핵이 첫 번째 항암제라면, 김장겸의 퇴진은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싸움은 금방 끝낼 것이고 그들이 ‘정치적 사망진단서’를 손에 쥐는 그날, 해직 언론인 6명은 정문으로 출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측, 비정규직에게 뉴스 땀질 요구

최기화 기획본부장이 프리랜서 계약직 라디오 뉴스 진행자를 1대1로 만나 파업 돌입시 TV뉴스를 맡아줄 대체 인력화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 인력화 요구를 부당한 압력으로 판단한 일부 라디오뉴스 진행자들이 파업지지 의사를 밝히며 자진 퇴사하거나 개인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여성 라디오뉴스 진행자 한 명을 사석에서 만나 “나는 20년을 바라보고 라디오 진행자 시스템을 만들었다. 총파업 돌입시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라디오뉴스 진행자들이 TV뉴스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면서 이런 뜻을 다른 진행자에게도 전할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라디오뉴스 진행자들은 사측의 요구가 출연 계약 위반은 물론 프리랜서 계약직이라는 신분상의 약점을 악용해 대체 인력화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하고 반발하기 시작했다.

프리랜서 진행자 6명은 지난해 2월 채용돼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이들이 회사와 체결한 계약상 직종은 ‘라디오뉴스 진행자’로 계약서엔 ‘울은 집단적 또는 개인적 이유로 프로그램 출연을 거부할 수 없다. 갑은 을과의 계약 해지는 물론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 있다’는 압박성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신인수 조합 자문변호사는 계약서를 검토한 뒤

“TV뉴스 출연 요구는 사측이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압력이자 대체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설명했다. 최 본부장은 이미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측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 명백한 계약 위반... 사직·반발 잇따라

그런데 진행자들의 반발 움직임과 부당노동행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미 라디오뉴스 진행자의 TV뉴스 참여를 현실화했다.

지난 금요일 오전 회사는 진행자들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 신설되는 주말뉴스 데스크용 해외토크 코너의 사전녹화에 라디오캐스터들이 참여하게 될 것 같다. 국제부에서 기사를 받아 1분반 정도 길이로 오디오를 읽어 넘겨주면 된다”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이에 당일 오후 근무를 맡은 모 진행자는 “계약된 업무 외의 일”이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회사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해당 리포트를 읽어서 오디오를 제공했다.

일련의 부당 지시에 반발한 김정정 진행자는 “더 이상 MBC 라디오 뉴스를 전하지 않겠다. 비록 프리랜서 신분이지만 공정방송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이 MBC를 다시 세우겠다고



떠난 일터에서 모른 척 뉴스를 읽고 있을 수 없다”며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김형기 진행자는 ‘저는 비정규직 언론인입니다’라는 개인 성명을 통해 “지금 하는 일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감까지 짊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인력을 파업 대체용으로 사용하려는 시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보팀은 최 본부장의 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그는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또 문호철 보도국장을 비롯한 보도국 간부들은 “계약서상 TV뉴스 진행도 가능하지 않은가. 지난 주말 건은 진행자의 동의를 구했다”며 당사자들과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면서도 이번 주말뉴스에는 라디오뉴스 진행자를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170일 파업 이후 5년...“유예된 승리, 쟁취한다”

## ‘마봉춘’, ‘엠빙신’ 이 되다

2012년 7월 18일, 우리는 170일 간의 최장 기간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현장 투쟁을 외쳤고 노력했지만, 지난 5년 사측의 폭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공영방송 MBC는 더욱 처참히 무너졌다. ‘엠빙신’과 ‘기레기’라는 미아냥은 일상이 됐다. 방송에서 공정성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최소한의 상식도 없었다. 시청자들은 철저히 MBC를 외면했다. 구성원들에게도 MBC는 수치와 치욕, 분노의 대상이 됐다. 해고와 부당 전보, 부당 노동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됐고, 비상식적인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MBC의 위상과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다.

## 5년의 수난...끝 모를 추락

지난 5년 우리는 도구일 뿐이었다. 제작진의 자율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영혼 없는 기능인으로 남았다. 저항하면 보복이 잇따랐다. 블랙리스트 등급도 매겨졌다. 권력 비판적인 내용은 번번이 묵살됐고, 설령 받아들여지면 내용이 예상치 못하게 변질돼 안 하느니만 못하게 돼버렸다. 인터뷰 대상자 섭외도 마음대로 못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자기 검열에 빠졌다. 제작 현장엔 보람도 웃음도 사라졌다. 그나마 마이크와 카메라, 편집기를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이다. 아무 일도 못 하거나, 스케이트장을 관리 했다.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나가기도 했다.

## 다시 총파업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170일 파업 이후 5년,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다. 다시 총파업이다. 김재철과 안광환, 김장겸 등 수많은 공범자들의 책임을 묻고, 공정방송 MBC를 복원하는 건 우리의 의무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과 시청자들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 우리는 공정 방송을 복원하기 위해 5년 만에 다시 파업을 재개한다. 잠정 중단됐던, 유예된 승리를 다시 쟁취하겠다.

# 끝나지 않은 지역MBC 잔혹사

##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 급격한 인력감축 ... 제작 여건 초토화

7년 전 봄, 상경집회를 가던 버스 안에서 김재철 사장 내정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성격은 나쁘지 않은데, 사장감은 아니라네.” 누군가와 통화를 끝낸 당시 지부장의 전언이었다. 거기서 거기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김재철의 등장은 이전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른 ‘지역mbc 잔혹사’의 시작이었다.

우선 지역MBC의 물적 토대인 광고매출이 급감했다. 김재철 취임 이듬해, 아직까진 김재철 효과가 충분히 광고시장에 반영되기 전인 2011년 3,203억 원이던 지역MBC 광고매출 합계는 불과 5년 뒤인 2016년 2,301억 원으로 급감했다. 김재철 등장 5년 만에 지역MBC 광고매출이 37%, 1,172억 원이나 중발했다.

매출급감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시차 같은 건 없었다. 같은 기간 지역MBC에서는 315명(226명 정년퇴직, 89명 명예퇴직)이 퇴사했다. 전체 근무인원의 무려 25%가 회사를 나갔다. 하지만 이 기간 채용인원은 202명(정규직 77명, 계약직 125명)에 불과했다. 퇴직자와 입사자의 단순계산만으로도 113명이 줄었다. 게다가 입사자의 60%는 2년 일하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계약직이었다. 지역사의 제작여건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다.

김재철 체제가 MBC에 이식되고, 서울도 직격탄을 맞았다. 메체신뢰도와 영향력은 추락했고, 광고매출도 34%나 줄었다. 하지만 서울은 이른바 ‘콘텐츠유통’ (광고를 파는 게 아

니라 프로그램 자체를 파는 행위)으로 그나마 버텼다.

### 낙하산 사장들...생명 연장에만 급급

지역은 달랐다.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아니 김재철 이후 지역사장들은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지상파의 위기, 지역방송의 위기를 구조적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는 아예 없었다. 광고 배분구조 조정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사장도 없었다. 숫자로 드러나는 매출급감과 구조조정이 지역사의 외형을 축소시키는 동안, 그들의 언행은 지역사 구성원들의 내면을 갉아먹었다.

아무런 통보 없이 누군가 먼저 특별상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임금채불사태는 빠르게 번진다. 폐쇄해도 담대한 건 녹취록 속 누군가를 빼달았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연차축진제를 일방 시행한다. 결과는 휴가도 없고 보상도 없다. 추가 소송 대상이다. 지부위원장 타임오프(노조 업무를 할 수 있는 근로면제시간)를 동시에 회수하고 현업복귀명령을 낸다. 의욕과잉 사장이 지부장을 원직이 아닌 MD로 발령을 낸다. 원직에 복귀시킨 사장은 ‘저기 봐 나는 양반이야’라고 우쭐댄다. 전과료 재조정, CM순서지정료, 간접광고 배분에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향후 인력채용은 계약직뿐이라고 선언한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그래 놓고 자기들 임금은 느닷없이 8.5%나 올린다. 임금협상권한을 위임하라면 위임했다가, 회수하라면 회수한다. 단일호봉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서울경영진의 지침에 복종한다. 골프접대로 선물공세로 충성경쟁을 한다. ‘김영란법’은 안중에 없다. 자회사 사장으로 또는 계열사 사외 이사로 생명연장에 성공한다. 이 모든 걸 저질러 놓고도 죄의식이 없다. 최소한의 ‘염치’도 김재철 이후에는 찾아볼 수 없다.

부역에 동조했거나 최소한 외면한 공으로 사장자리를 꿰찬 자들에게 뭘 기대하는가? 이런 탄식과 자조가 오히려 지역구성원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동질성의 핵심이 된지 오래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전국 방방곡곡 촘촘하게 뻗어있는 MBC 네트워크의 강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MBC가 ‘자율성’을 되찾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싸움의 또 다른 본질이다.

